

(사)한국포장협회
제9기 포장기술관리사 배출
 57명 합격, 오는 9월 10기 시작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는 제9기 포장 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 결과 총 수강생 71명 가운데 57명이 자격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포장협회가 3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제9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는 KT&G 변해경 과장이 1백점 만점 중 93.2점을 획득, 최고우수 성적 수료자의 영예를 안았으며, 연세대

학교 패키징학과 원성인 학생이 92.9점을 김진호 학생이 91.9점을 획득, 우수 수료자로 선정됐다. 한편 협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한국포장협회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실시
 9월 22일~12월 20일까지 11주간 실시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가 오는 9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주간 제10기 포장기

교육 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08. 9. 22 ~ 27	• 포장개요 • 지류포장	08. 9. 22	08. 10. 4
제 2 주	08. 9. 29 ~ 10. 4	• 플라스틱 포장재	08. 9. 29	08. 10. 11
제 3 주	08. 10. 6 ~ 11	• 금속포장(제판) 및 유리병	08. 10. 6	08. 10. 18
제 4 주	08. 10. 13 ~ 18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08. 10. 13	08. 10. 25
제 5 주	08. 10. 20 ~ 25	• 방수 · 방습 · 방청 · 완충 · 중량물 포장기법	08. 10. 20	08. 11. 1
제 6 주	08. 10. 27 ~ 11. 1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08. 10. 27	08. 11. 8
제 7 주	08. 11. 3 ~ 8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08. 11. 3	08. 11. 15
제 8 주	08. 11. 10 ~ 15	• 포장기계	08. 11. 10	08. 11. 22
제 9 주	08. 11. 17 ~ 22	• 포장과 환경	08. 11. 17	08. 11. 22
제10주	08. 11. 24 ~ 29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08. 11. 24	08. 12. 6
제11주	08. 12. 1 ~ 6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08. 12. 1	08. 12. 13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08.12. 8	08. 12. 20
최종심의 완료				09. 1. 6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09. 1. 9
수강자 소집교육 및 관리사증 수료		• 오후 : 오리엔테이션 및 관리사증 수여		09. 1. 22

술 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2002년 정부(산업자원부) 사업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인력양성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포장협회는 3년간 전역 국고 지원으로 국내 포장인력양성을 위한 14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추진해 왔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개발된 11개 Volume(총 21개 과목)을 1주일 단위로 1개 Volume씩 수강자에게 우송(인쇄책자, CD우송)하며, 수강자들은 교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시험문제 및 논문을 작성하여 주관기관(협회)에 재발송해야 한다.

협회는 수강자들로부터 받은 유인물을 엄밀히 평가해 기록(총 평균 60점 이상 합격), 총 11개 Volume 중 10개 이상의 유인물을 제출한 수강자에 한하여 '포장기술관리사' 증심의 대상이 된다. 과락(60점미만)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시험의 기회를 주며, 전 과목 평가가 완료된 후, 합격자에 한하여 포장기술관리사증을 수여한다.

포장기술관리사 합격 심의 기준은 레포트 제출 점수(5점), 레포트 질적 평가(60점), 종합시험(35점)으로 구성된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의 경우 28만원,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는 22만원이며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15만원이다.

제10기 포장기술관리사 합격자들에게는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증이 수여되는 등 국내 포장산업의 취업, 이직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강화 및

제도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전화 02-2026-8655/9, 팩스 02-2026-8660 담당 김은혜)로 하면 된다.

(주)코오롱
후막베이스필름 라인 1백% 증설
 포장용은 광학용 필름 라인으로 개조

(주)코오롱(대표이사 배영호)이 대대적인 필름사업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LCD용 필름의 여전한 강세와 터치스크린·태양광전지 등 신규 시장 성장에 대비, 광학용 후막베이스필름 생산 라인을 대대적으로 증설한다. 대신 저가 중국 제품 유입으로 최근 평가 인하 압력이 거센 포장용 필름 생산라인은 광학용 필름 제조 라인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코오롱은 경상북도 김천에 광학용 후막베이스필름 신규 라인 증설에 돌입, 내년 하반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1만5천톤 수준의 생산량은 2010년 3만톤 규모로 늘어나고 관련 매출도 올해 약 8백억원에서 1천6백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후막베이스필름은 2백50~3백마이크로미터(μm)의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별도의 코팅을 통해 LCD용 백라이트유닛(BLU)·터치스크린·PDP·태양전지용 백시트 등에 사용된다. 회사 측은 최근 LCD 패널 성장세가 견조하고, 터치스크린 시장 성장률도 높아 관련 필름 수요도 크게 늘 것 것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 측은 “광학용 필름은 생산기술이 까다

로워 포장용에 비해 판가가 높게 유지되는 편”이라며 “향후 포장용 필름 생산라인 중 50%도 광학용 필름을 생산할 수 있게 개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C(주)
인체 무해한 PET필름 개발
고농도폐수 미생물처리기술 상용화

SKC(주)(대표이사 박장석)가 세계 최초로 고농도 폐수 미생물 처리 상용화에 성공,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갖추게 됐다.

SKC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환경오염 물질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SKC는 최근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화학사업은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석유화학협회, 고객, 구매처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 필름사업은 REACH 등록 면제 물질이어서 포장용 PET필름의 식품포장재규정인 미국 FDA, 유럽 EC에 대한 인증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SKC는 PVC 및 셀로판이라는 환경 오염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2000년에 친환경적인 폴리에스터(PET) 소재를 사용한 열수축 및 트위스트 필름의 개발에 성공했다. PET는 인체에 무해해 이미 많은 음식물의 포장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해 소각이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소재이다.

열수축 필름은 열을 가하면 변형이 생겨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PET를 혁신적인 공중합 기술과 원료 개발로 열수축성을 지닌 필름 개발에 성공한 사례이다.

SKC는 개발 이후 기존의 수축 PVC는 전량 친환경 소재인 PET 열수축 필름으로 빠르게 대체하였으며, 최근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소주병(참이슬 Fresh Summer, 처음처럼 Cool)에 라벨로 채택돼 소주병의 ‘화려한 변신’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트위스트 특성을 가지는 폴리에스터 트위스트 필름의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다.

또 SKC는 친환경 생분해성 필름을 2005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SK텔레콤의 고지서 봉투창용 필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까지 매립 시 종이는 생분해되는 반면, 봉투창용으로 사용되던 필름은 분해되지 않아 종이와 필름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했지만, 생분해필름을 적용함으로써 동시에 매립해 처리해도 된다.

SKC의 미생물을 활용한 폐수 처리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고농도폐수 미생물 처리기술을 상용화하기도 했다. 이 기술로 10배 이상의 처리효율을 달성하고 소각 처리시 발생하는 탄소, 백연, 냄새 발생을 최소화시켜 2차 오염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갖추게 됐다. SKC의 한 관계자는 “미생물처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각 연료비 절감 효과가 연간 1백억 이상의 이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특히 탄소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어 화학사업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안기계(주)
드루파 2008 참가
 신시장 확대 및 8백만불 이상 계약 달성

차별화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포장 기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성안기계(주)(대표 이사 신동호)가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국제 인쇄박람회 드루파(DRUPA) 2008에 참가했다.

그동안 중국,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22개국에 수출을 해 온 성안기계는 드루파 2008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과 동서유럽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태

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등 11개국 에이전트 및 서비스망을 확보하고자 금번 전시회에 참가했다.

드루파 2008 기간 동안 성안은 Champion 500(그라비아 인쇄기)을 비롯, Hiflex Boxer(플렉소 인쇄기), Hi-Ex Series(압출기) 및 MRC 313(다목적 코팅기)를 출품,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참관객과 바이어의 독보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안기계는 기존 11개국의 에이전트 외에 20여개국으로부터 에이전트 협의를 받았으며, 39개국으로부터 거래 요청을 받았으며 80여개 이상의 기계 견적 요청을 받는 등 8백만불 이상의 계약을 달성, 선진시장으로 수출 및 SAM의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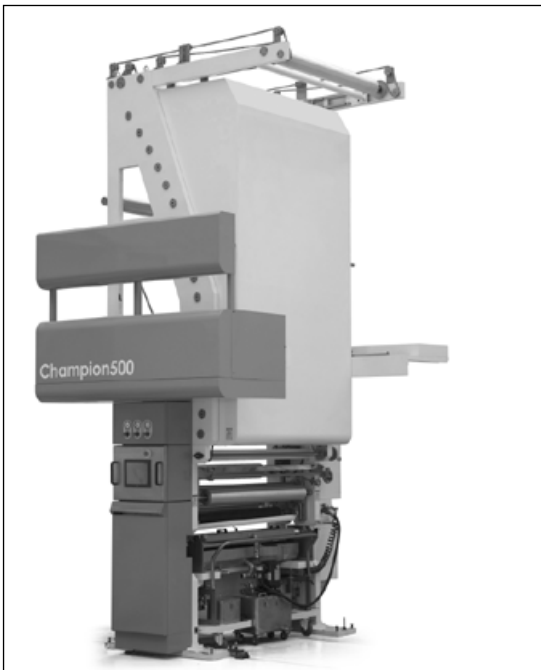


▲ 성안기계(주) 드루파 2008 참가

고객 요구에 부응하며 신기술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성안기계는 드루파 2008을 계기로 앞으로 맞춤형 고성능 기계를 제공, 선진시장에 성공적으로 우위를 점할 계획이다.

최첨단 디지털인쇄 기술을 비롯한 미래 인쇄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드루파 2008은 50여 개국의 총 1천8백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4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 역대 최대 규모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드루파 2008 전시홀은 총 19개로 주요 전시품목은 인쇄기기류, 인쇄 관련 용품, 인쇄기술, 제본기계, 인쇄용 잉크, 인쇄제지류, 그래픽아트, 인쇄업과 관련된 포장기술, 인쇄 포장 용품 생산기계, 관련된 재료와 원료 등이 선보였다.



▲ 성안이 선보인 그래픽어 인쇄기 Champion 500

한국포장기술연구소
Slitting · Winding 세미나 개최
 신재료 Slitter 기술과 Trouble 대책

한국포장기술연구소(소장 김영호)가 다음달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해외전문가 초청 Slitting · Winding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동안 코팅, 라미네이팅, 프린팅 등의 가공 기술을 근간으로 일반 제품부터 고부가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컨버팅 업계와 이들 제품의 소재가 되는 플라스틱 필름, 호일, 제지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Slitting · Winding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러나 최근, 고기능성과 고가의 신재료인 전자재료나 광학재료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최종 제품 상태의 완벽화, 전과정 중 최후 공정으로서 제품의 로스 방지가 지상과제로 대두돼 Slitting · Winding의 기술은 이들 제품의 제조 핵심기술과 같이 인식되고 또한 그 기술도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기능성 신재료 메이커, 슬리터 제작자, 필름, 박, 종이 · 판지 제조업체 및 컨버팅 업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中村 씨가 강사로 초빙됐다.

中村 隆(Takashi Nakamuar)는 2006년 (株)加工技術研究會가 주최한 ‘高機能·新材料’를 위한 Slitter 기술과 Trouble 대책’을 비롯해 ‘신기능성재료전 전시회’와 동시개최된 포럼에서 ‘고기능재료를 위한 Slitter 기술과

정책기관

Trouble 대책 'Slitter·Winder의 기초와 권취 제어기술'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개인컨설턴트로 슬리터 전문가이다.

이번 강연은 슬리터의 분류, 슬리터의 기계구성, 슬리터 앞 장치, 슬리팅 기술, 권취구동(장력), 권취 접압방식과 제어, 권취축수, 권취 제품의 품질과 검사, 재료두께의 표현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이번 달 29일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로 하면 된다. 전화 : 02)2026-8166

정부 지식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선정 패키징(포장), 물류 등

정부의 '신(新)성장동력' 발굴사업 중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후보에 디자인, 컨설팅 등 11건이 선정됐다.

지경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지식서비스분과(위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는 지난 달 9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신성장동력 발굴 분과 토론회'를 열어 디자인, 패션, 패키징(포장), 소프트웨어, 컨설팅, 엔지니어링, 이터닝, 물류, 의료서비스, 시험·인증, 전시 등 11개 분야를 신성장동력 후보로 제시했다.

지식서비스분과는 "성장성과 고용효과, 다른 산업에 대한 기여도, 경쟁력, 미래지향성 등 5개 기준을 토대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최종 신성장동력은 오는 9월 각계 의견 수렴과 내부 토론을 거쳐 결정된다.

오상봉 위원장은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자체의 성장외에도 양질의 고용창출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서비스팀장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의 부가가치 핵심 분야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발굴은 지식서비스산업과 첨단소재, 수송, 기계·항공 등 주력 기간산업, 융합, 로봇, 나노 등 신산업, 그린오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환경산업 등 4개 분과로 나뉘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RFID/USN 기업에 6천6백억원 투자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RFID/USN 산업이 자동차, 의료, 건설, 유통·물류 등 소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며, 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가치사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